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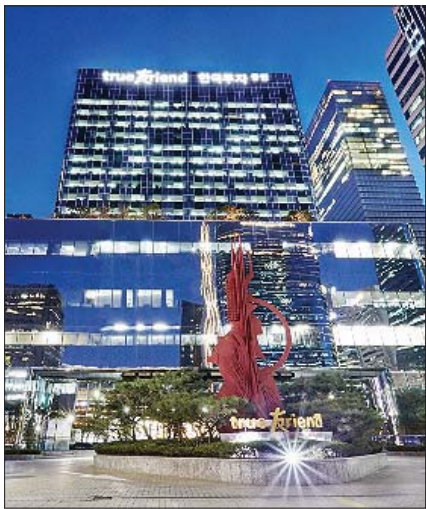
원금보장 투자상품 첫 등장… 금융투자 산업 퀀텀점프 기대

한국투자증권, IMA 1호 출시

2년만기, 최소 가입금액 100만원
23일까지 영업점·홈피 등서 판매
만기시 손실뎌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은행 ‘머니무브’ 본격화 가능성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원금은 사실상 보장되는 종합 투자계좌(IMA) 1호 상품이 나왔다. IMA는 국내 금융투자 산업이 퀀텀 점프하는 트리거가 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JP모건체이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처럼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 예·적금에서 증권사로 ‘머니무브’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의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최초로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을 출시, 판매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IMA 상품은 증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전경. /한국투자증권

권사가 고객 자금을 모아 기업금융에 직접 투자하고, 그 성과를 고객과 나누는 구조의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최초 IMA 사업자로서 1호 IMA 상품의 판매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이번에 출시된 1호 IMA 상품은 2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설

계됐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개인별 투자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판매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로, 한국투자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만기 이전에는 중도 환매가 제한되며, 만기 시점의 자산 운용 성과와 자산 가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투자자가 만기까지 상품을 보유하면, 원금 이하로 손실이 나도 증권사가 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IMA 상품은 예금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증권사가 부도·파산하는 경우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

운용 자산은 기업 대출과 회사채, 인수 금융 등 현금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 금융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원금의 안정적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시장금리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

웠던 비상장·사모 영역의 대체 투자 자산에도 분산 투자해,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투자 선택지를 넓히고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기업 금융과 모험 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한국투자증권은 상품에 대한 시장 반응과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객군과 만기, 위험 수준을 세분화한 다양한 IMA 상품을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IMA는 단순한 신상품이 아니라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연결하는 생산적 금융 인프라”라며 “발행어음 1호에 이어 IMA 1호 사업자로서 시장을 키우고 기준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도 ‘1호 상품’ 설계안을 당국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실적배당형 IMA 1호 상품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배당형·프로젝트형(혁신성장 기업 편입) 상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단기적인 잔고 확대에 집중하기보다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글로벌 투자 역량과 벤처 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양질의 IMA 2호·3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IMA를 통해 상품 구조를 세분화하며 기존에 강점을 보유했던 자산관리(WM) 부문과의 시너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객마다 서로 다른 위험 선호도와 기대 수익률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보다 정교한 IMA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IMA시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들 두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3배까지 IMA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올해 3분기 말 자기자본 기준 한국투자증권은 최대 약 36조원, 미래에셋은 약 31조원까지 예탁금을 유치할 수 있다. 자기자본 규모가 달라지면 유치 한도는 더 늘거나 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지정 승인을 대기중인 NH투자증권이 가세(약 25조원)하면 산술적으로 내년에만 약 90조원 규모의 새로운 투자 상품 시장이 열린다.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높아 은행 예·적금에서 증권사로 ‘머니무브’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2년과 3년 만기 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 2.43%다. 5대 은행의 1년 만기 상품은 평균 연 2.84% 금리를 주고 있다.

국내 대형 증권사의 몸집과 레버리지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IMA도입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차입이 가능해지는 만큼, 규제가 그 대로라면서 레버리지 확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개편과 함께 대형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규제(LCR) 확대와 정상화·정리계획(RRP) 도입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증권사의 총자산은 2010년 199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851조7000억원으로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레버리지 비율은 6.3배에서 9.2배로 상승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CAMPUS LIFE

교육과 연구 혁신이 생활이 되다

지난 6년, 연구혁신 기반 시 교육 시스템으로
미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해 온 우리 중앙은 세계를 연결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교육과 함께 뛰어난 연구성과로 보다 나은 세상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선도하겠습니다

■ 지식 창출로 미래를 선도

- 533명 전임교수 채용, 연구사업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1조 수주
- BK21 사업 18개, 선도연구센터(ERC, SRC) 6개, ICT 연구센터 4개, 중점연구소 3개 유치

■ 첨단기술 기반 학생 성장 지원

- 첨단 인재양성 체계 확립[시학과-사대학원, 산업보안학과-보안대학원]
-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사업[전자전기공학부 - 지능형 반도체대학원]
- 창의ICT공과대학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신설

■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 세계 6대륙 661개 대학과 학생교류, 연구협력 협정체결
- 혁신공유대학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실감미디어 인재 양성)

2025관 청단공작관 준공 예정

DO! THE BEST

중앙대학교 202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2025. 12. 29. (월) ~ 12. 31. (수) 18:00까지
<https://admission.cau.ac.kr> | 02)820-6393

은행 3%대 금리 돌아왔다 증시→정기예금 ‘머니무브’

5대은행 예금잔액 두달연속 증가
증시에탁금은 한달 새 7.5조 감소

개인투자자 자금이 은행권 예금으로 이동하고 있다.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 자산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은행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풀이된다. 고금리 환경으로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유동성 확보와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선 금리인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은행의 11월 말 정기예금 잔액은 971조989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965조 5689억원)과 비교하면 6조원 넘게 늘었다.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8월 954조 7319에서 9월 947조1696억원으로 감소한 뒤 10월 들어 965조5689억원으로 상승한데 이어 2개월 연속 이어졌다.

반면 증시 대기자금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말 77조9210억원으로, 한달 새 7조5449억원 감소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인하에도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점

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요동치고, 일본은행(BOJ)의 금리인상 등 대외변수가 국내 증시 상승세를 제한한 영향이다.

예금금리가 증시 수익률을 웃돌고 있다는 점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은행의 예금금리는 1년만기 기준 기본금리가 2.90%까지 상승했다. 최고금리는 연 3.00%다. 적금은 기본금리가 연 2.95%, 최고금리가 연 3.55%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난달 수익률은 각각 -4.40%, 1.36%에 그쳤고, 이달 들어서도 각각 3.39%, -0.1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기본 금리기준 가장 금리가 높은 예금은 Sh수협은행의 ‘헤이 정기예금’이다. 헤이 정기예금은 연 3.00% 금리를 제공한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과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의 기본금리는 각각 연 2.95%다.

금리가 가장 높은 적금은 Sh수협은행의 ‘Sh해양플러스저축(Zero)적금’으로 연 3.50%를 제공한다. 우리는 행의 ‘WON적금’은 연 2.95%,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적금’은 연 2.90% 금리를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